

작품 내용

제 목	위터마크의 추억
내 용	10년 전에 나는 군대에 있었다. 당시에 행정병이었던 나에게 가장 부담되었던 임무 중 하나는 대형 행사 직전에 확정되는 표창장과 상장을 출력하는 일이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수상자의 이름과 군번, 소속 및 공적사항을 일일이 대조하며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도 고역이었지만, 진짜 사투는 엉뚱한 곳에서 벌어지곤 했다. 바로 화면 뒤편에 유령처럼 선명하게 박혀 나오는 보안 '위터마크' 때문이었다. 군 내부 전산망에서 문서를 출력하면, 보안 목적으로 출력물의 정 중앙에 출력한 실무자의 계급과 성명이 찍혀 나왔다. 평소 보고서나 공문을 찍어낼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흔적이, 화려하고 엄숙해야 할 표창장 용지 위에서는 지독한 '얼룩'처럼 느껴졌다. 상장의 상징적인 권위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귀찮은 방해물에 불과했다. 프로그램 설정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고정된 보안 값이었기에, 나는 그 회미한 글자들을 가리기 위해 육체적인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 내가 고안해 낸 최종 방법은 일명 '포스트잇 작전'이었다. 위터마크가 찍힐 상장 한가운데 자리를 자로 재어 정확한 크기의 포스트잇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었다. 프린터기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포스트잇 위에 위터마크를 출력해 내면, 인쇄가 끝난 뒤 그 포스트잇을 쓱 떼어냈다. 그러면 마법처럼 위터마크가 완전히 사라진, 깨끗하고 투명한 표창장이 탄생하곤 했다. 오직 상장의 본문과 붉은 직인만이 선명하게 박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시 상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내가 부단히 노력했던 행정 업무의 결실이었다. 세월이 흘러 전역을 하고, 서랍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군 생활의 훈장처럼 남아 있던 표창장 몇 장을 우연히 꺼내 보게 되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상장 한가운데에는 아직까지도 본 적 없는 지휘관의 이름과 그 위에 찍힌 큼지막한 외곽 직인이 여전히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내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긴 것은 그 화려한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포스트잇 처리' 없이 출력되어 결국 위터마크가 찍혀버린 상장의 계급과 이름이었다. 그것은 당시 같은 인사과 사무실에서 한 팀으로 움직였던 나의 상관의, 그리고 나 자신의 지워지지 않은 영혼의 흔적이었다. 그 순간 고전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떠올랐다. 흔히 대중은 소설 속 거대하고 기괴한 괴물의 이름을 '프랑켄슈타인'으로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이름이 아니다. 밤낮으로 연구실에서 영혼을 갈아 넣으며 그 피조물을 탄생시킨 창조주,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드러난 거대한 피조물의 존재감에만 압도되어 정작 그것을 만든 창조주의 고뇌와 이름을 지워버린 것이다. 내가 그토록 포스트잇으로

가려가며 지워내려 했던 워터마크 속 실무자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장의 권위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정작 이 상장이라는 피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은 진짜 '창조주'의 흔적이었던 셈이다. 형식적인 상장 칸에 적힌 높으신 분의 존함보다, 배경 뒤에 숨어 숨 쉬고 있던 실무자의 성명이 내 가슴속에 훨씬 더 아련하고 생생한 추억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은 화면 위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웹툰을 보고, 귀를 사로잡는 음악을 들으며, 가슴을 울리는 한 줄의 글과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를 소비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손에 쥐며 당연한 권리처럼 누린다. 마치 내가 상장에 박힌 커다란 직인과 지휘관의 이름만을 상장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모든 창작물의 이면에는 창작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핏발 선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던 작가의 밤이, 단 하나의 멜로디를 찾기 위해 수천 번 건반을 두드리던 작곡가의 고독이,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고뇌하던 기획자의 영혼이 그 작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파일 하나를 무단으로 내려받거나, 출처 없이 문장을 긁어가는 기술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편리함이라는 가위로 피조물 뒤에 숨은 창작자의 이름을 지우고, 그 고귀한 창조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행위다. 흔적을 지우고 나면 콘텐츠는 한결 깔끔하고 쓰기 편한 공짜 재화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창작자의 이름과 노력을 소거해버린 작품은 생명력을 잃은 시체 더미에 불과하다. 타인의 이름을 가차 없이 지우는 사회에서, 언젠가 내가 온 힘을 다해 창작해낸 글과 아이디어 역시 누구에게나 쉽게 지워질 얼룩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대단히 거창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 아니다. 화려한 결과물 뒤에 숨어 있는 창작자의 실루엣을 기꺼이 들여다보고, 그 존재를 온전히 인정해 주는 따뜻한 선의이다. 상장 뒤편의 워터마크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에게 가장 값진 추억의 증거가 되어주었듯,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예술작품 속에 새겨진 창작자들의 시그니처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문화 생태계도 더욱 풍요롭게 반짝일 수 있다. 이제는 타인의 작품을 마주할 때마다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숨은 흔적을 찾아보려 한다. 포스트잇으로 기를 쓰며 지우려 부단히 노력했던 그 워터마크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존중하고 지켜주었어야 할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전부였기 때문이다.